

□ 만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만화' 그 무한한 세계로의 발돋움을 시작하자

□ 현 만화계를 바라보는 만화동아리 **훈그림(서울캠퍼스)**의 시각  
**의연한 창작으로  
검열의 벽을 넘어**

크다. 잘 한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 '훈' 그림. 펜 끝의 예리한 선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그들은 서울캠퍼스의 11살짜리 만화동아리이다.  
"저희는 자체검열이 없어요. 자신의 이상을 표현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현세씨의 구속사건과 관련, 훈그림 내에서의 검열제도에 대한 회장의 설명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문화관광부의 검열 완전철폐를 희망했다. 독자층의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약만 하려는 문화관광부의 체제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분위기 형성'에도 한몫한다는 것이



▲ 훈그림 회원 박중기(미술 1)군 작품

그들의 생각이다. "만화란 불쌍하고 음성적인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었다. 만화가 교육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라며 만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피력하는 회원들.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기에 일본의 문화 개방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다. 물론 일본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 시스템 등은 열악하다. 하지만, 음츠러들기에 앞서 선진기술을 빨리 소화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훔미나씨의 '유희'라는 만화는 일본의 모방잡지에 연재되고 있고, '붉은 매'는 유럽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이 됐죠. 그 밖에 데원수연씨의 '풀하우스'나 이현세씨의 '활' 등 외국으로 수출되어 인기를 끄는 작품도 많아요."라며 우리나라 만화계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그들은 결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았다. 늘 개방된 사고로 하나 둘 배워가려는 이들의 모습에서 현재 혼란스러운 만화계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종 기자)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영상산업과 함께 만화를 꼽고 있다. 만화는 문화상품의 하나로,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이 그들의 얘기이다. 그러나 아직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지난 여름 만화가 청소년의 폭력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식돼 만화책이 압수당하고, 만화가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 것은 이같은 정서를 반영하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대중문화의 점진적인 개방도 눈앞에 다가왔다. 아무런 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만화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학생들의 인식 등을 다루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서울·수원 캠퍼스 만화동아리인 '훈그림', 만화통신 회원들의 생각도 들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박인하  
(만화평론가)

만화는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산업이고 문화상품이다. 그런데, 그래서 어쩔만 말인가? 만화를 둘러싼 자본이 부풀려진다고 내가 보는 만화가 달라지는가? 아니면 내가 보는 만화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만화를 보아온 세대와 나누는 이야기다.

만화는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뉴스플러스'에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를 연재하는 미술평론가 성완경은 만화를 보는 것은 비밀스러운 제의처럼 혼자만의 독점적이고 비밀스런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만화 독자 1세대쯤 되는 성완경 교수나 박재동 감독이 즐기던 만화의 모습이다. 그러나 20대에 이르러는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만화세대에게 만화는 혼자만의 독점적이고 비밀스런 쾌락을 넘어선 '소통'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만화를 볼으로써 서로 소통한다. PC통신에는 대규모 만화동화회와 함께 소규모 만화모임이 수두룩하다. 특정한 만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만화세대에게 만화는 생활의 일부이자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통로인 것이다.

그렇다. 소통의 미학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장르가 만화다. 만화는 예술이 고도로 추상화되고 관념화되기 전 인간과 서로 소통할 때의 모습을 지

이로 인해 만화는 엄청난 상업적 파괴력을 지닌다. 만화가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산업이고 문화상품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만화세대에게 있어 만화의 이미지는 매우 매력적으로 소유욕을 자극한다. 칸과 칸을 통해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기 때문에 만화의 서사는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되어 재구성된다. 일본만화가 세계의 젊은 만화세대에게 급속도로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화세대를 자극하는 '소통구조' 그리고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기반한 다양하게 응용되는 이미지와 서사는 그야말로 매력적이다.

다. '만화읽기의 천덕스러움'을 이제는 버리자. 골방에 처박힌 만화를 서가의 장서로 복귀시켜야 한다. 은밀함 대신 공식화와 전면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만화의 경쟁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만화산업에 대한 출발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만화산업은 만화를 이해하는 만화세대에게 의해 촉발되어야 한다. 그러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만화산업에 종사하는 기획자나 투자자는 실질적인 구매층과 이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구매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이 모두 그렇다. 만화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세대가 전면에서 나서야만 비로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 역시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통'이 막힌 세대가 만화산업의 종사자로 있는 한, 투자자의 눈이 10년 전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만화산업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일본만화 개방에 대한 문제는 마한가지다. 이미 일본만화는 우리나라에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개방유무를 떠나 수용자와 일본만화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만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시기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버렸다. 지금 와서 다시 뒷북칠 필요는 없다. 왜 일본만화가 급속도로 우리나라의 만화 수용자와 소통의 길을 넓혔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아니,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고 늘 만화만 존재하는 만화의 위치를 공식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만화는 코믹스(comics)를 넘어서 코믹스(comix)가 되었다. 서로 소통(communcation)하고 그 소통으로 다양한 모든 것을 섞는다(mix)는 말이다.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만화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 만화의 공식화와 전면화

그러나, 글 채택의 이야기처럼 만화는 여전히 만화만 남아있다. 전이나 전이냐는 그대로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만화는 여전히 만화일 뿐이다. 허공에 뜬 논의만 무성했지 변한 것은 없다. 이제 만화세대에게 의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때는 준비된 대통령의 시대 아닌가?

가장 시급한 일은 만화의 공식화다. 어릴적 부터 만화를 보아왔고 만화에 애정을 느끼는 '준비된' 독자라면 만화의 공식화를 생활에서부터 이루어내야 한



니고 있다. (원시인의 동물문화나 우리나라의 민화 등이 만화의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한 지점에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발전해왔다. 한 칸의 미학을 번득이는 한 칸 만화가 칸과 칸으로 나누어 서사를 진행하는 연속만화가 모두 그러하다. 칸으로 나누어 분절되어 있지만 칸 안에서 만화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만화는 (만화를 즐겨 보는 사람들에게) 매우 경제적이면서도 창의적이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표현의 영역이 숨어있는 것이다.

□ 일본만화 개방에 대한 '만화통신(수원캠퍼스)'의 의견  
**"새로운 시각으로 만화 바라보길"**

일본문화 개방시 가장 먼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화부분에 대해 만화통신 회원들은 "일본만화의 부분적 우수성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차별적인 개방은 우리의 의식과, 국내만화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 역시 일본문화 개방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과 만화통신 회원들과의 공통적인 입장은 '개방은 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개방은 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한국 만화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만화를 아이들의 전유물로, 무조건 폭력적이고 해로운 저급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만화가 일본만화에 많이 뒤쳐져 있지만 만화를 보는 대중의 인식이 변화된다면 금세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김형선(제1공 2)군은 말한다.

또한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부족, 작품을 모방하는 등 작가의 프로의식 결여, 만화출판이나 애니메이션 감독을 할 만한 고급 인력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원캠퍼스 만화동아리인 만화통신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 중엔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동아리에 꾸준히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화를 그리는 데 관한 모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만화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한편, 일본만화개방으로 고사될 지 모르는 우리만화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화발전에도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류지은 기자)

신 회원들과의 공통적인 입장은 '개방은 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개방은 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한국 만화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만화를 아이들의 전유물로, 무조건 폭력적이고 해로운 저급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만화가 일본만화에 많이 뒤쳐져 있지만 만화를 보는 대중의 인식이 변화된다면 금세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김형선(제1공 2)군은 말한다.

또한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부족, 작품을 모방하는 등 작가의 프로의식 결여, 만화출판이나 애니메이션 감독을 할 만한 고급 인력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문화단신

라미레즈의 신인상 촬영 연주회 서울캠퍼스 교정기타연주 동아리인 라미레즈가 오는 27일 제16회 신인상 촬영 연주회를 가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인 '쁘르나까베자'와 비발디의 사계 중 '봄' 등의 곡을 클래식 기타의 고풍스런 멋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는 음대 크라운 관이며 공연시간은 오후 6시이다.

'97학년도 대학종합평가 및 교육개혁 평가 전국 1위, 경희대학교는 '9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경희대학교 추가경정 예산공고

추가경정자금예산서(교비회계 및 기성회비회계)  
(1997. 3. 1~1998. 2.28)

부속병원 추가경정자금예산서  
(1997. 3. 1~1998. 2.28)

법인일반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1997. 3. 1~1998. 2.28)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1997. 3. 1~1998. 2.28)

기안처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기안처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기안처: 경희대학교	1.총괄기부금	102,418	1,234	101,184	기안처: 경희대학교	1.기부금수입	159,265	133,066	26,199
	(1)입금금	3,291	11	3,280		(1)의외수입	157,386	133,066	24,320
	(2)수입금	62,088	18,234	43,854		(2)의외외수입	1,879	53,607	1,343
	(3)기성회비	33,326	2,999	30,327		(3)재외비	2,709	19,858	611
	(4)당기수입	3,323	7,967	-4,644		(4)의외외수입(기타)	446	446	0
	2.연입 및 기부금수입	37,336	474	36,862		(1)의외외수입	2,709	24,578	2,133
	(1)경내(내외)기부금	4,496	666	3,830		(2)기타수입	50	24,578	26
	(2)경외(내외)기부금	1,548	47	1,501		(1)의외외비용	50	24,578	26
	(3)차관입금	3,788	432	3,356		(2)예비비	0	1,702	-1,702
	(4)부속병원기부금	7,062	56	6,996		(3)예비비	0	1,702	-1,702
(5)특별회계기부금	474	262	212	(4)건설비등	2,159	2,159	0		
(6)입금기부금	263	779	-516	(1)차입금	0	1,702	-1,702		
(7)장기기부금	2,983	481	2,502	(2)예비비	0	1,702	-1,702		
(8)연기기부금	6,720	212	6,508	(3)건설비등	171	171	0		
(9)선입금	2,236	779	1,457	(4)미사용차기입금	8,489	8,489	0		
(10)도산금	783	409	374	합계	170,165	170,165	0		
(11)차주노조회계	436	521	85						
(12)기타노조회계	6,098	1,173	4,925						
3.교육투자자금	2,817	661	2,156						
(1)일반회계	87	409	322						
(2)특별회계	1,940	77	1,863						
(3)기타회계	113	329	216						
(4)대외비 및 사후보	401	411	10						
(5)노동복지	154	391	237						
(6)실업수당	16	489	473						
(7)기타교육투자자금	106	823	717						
4.교육외의 수입	8,283	282	8,001						
(1)일반회계	7,000	1,115	5,885						
(2)특별회계	133	70	63						
(3)기타회계	1,150	69	1,081						
(4)연구개발	1,589	43,807	42,218						
(5)특수연구개발사업	1	24,056	24,055						
(6)연구개발사업	1	13	12						
(7)연구개발사업	78	468	390						
(8)기타연구개발사업	1,300	9,986	8,686						
(9)연구개발사업	4	2,293	2,289						
합계	164,488	164,488	0						

기안처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기안처: 경희대학교	1.의료수입	159,265	133,066	26,199
	(1)의외수입	157,386	133,066	24,320
	(2)의료외수입	1,879	53,607	1,343
	2.의료외수입	2,709	19,858	17,149
	(1)의료외수입	2,709	446	2,263
	(2)기타수입	50	24,578	24,528
	(1)의외외비용	50	24,578	24,528
	(2)예비비	0	1,702	-1,702
	(3)예비비	0	1,702	-1,702
	(4)건설비등	2,159	2,159	0
(1)차입금	0	1,702	-1,702	
(2)예비비	0	1,702	-1,702	
(3)건설비등	171	171	0	
(4)미사용차기입금	8,489	8,489	0	
합계	170,165	170,165	0	

기안처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기안처: 학교법인 고려행재단	1.연입 및 기부금수입	26,270	805	25,465
	(1)연입기부금수입	19,897	805	19,092
	(2)기부금수입	5,825	1,015	4,810
	(3)학교보조금수입	548	199	349
	2.교육외수입	4,111	395	3,716
	(1)예외수입	3,577	421	3,156
	(2)기타교육외수입	534	420	114
	3.부차외 기타자산수입	1,723	420	1,303
	(1)부차외자산수입	412	7	405
	(2)부차외자산수입	1,311	7	1,304
4.미사용차기입금	23,828	11,424	12,404	
(1)연입기부금수입	19,897	805	19,092	
(2)기부금수입	5,825	1,015	4,810	
(3)학교보조금수입	548	199	349	
(4)교육외수입	4,111	395	3,716	
(5)예외수입	3,577	421	3,156	
(6)기타교육외수입	534	420	114	
(7)부차외 기타자산수입	1,723	420	1,303	
(8)부차외자산수입	412	7	405	
(9)부차외자산수입	1,311	7	1,304	
합계	61,932	61,932	0	

기안처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기안처: 학교법인 고려행재단	1.연입 및 기부금수입	26,270	805	25,465
	(1)연입기부금수입	19,897	805	19,092
	(2)기부금수입	5,825	1,015	4,810
	(3)학교보조금수입	548	199	349
	2.교육외수입	4,111	395	3,716
	(1)예외수입	3,577	421	3,156
	(2)기타교육외수입	534	420	114
	3.부차외 기타자산수입	1,723	420	1,303
	(1)부차외자산수입	412	7	405
	(2)부차외자산수입	1,311	7	1,304
합계	14,507	14,507	0	

1998. 3.23 경희대학교 총장 조정원      1998. 3.23 경희대학교 총장 조정원      1998. 3.23 학교법인 고려행재단 이사장 최태섭      1998. 3.23 학교법인 고려행재단 이사장 최태섭